



전남신보, 소상공인 라이브 스쿨 성료

전남신용보증재단(전남신보)은 지난 15일 '전라남도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전남 라이브 스쿨 교육을 성료했다. (사진)

지난 16일 전남신보에 따르면 '디지털 소상공인 1만 양성 사업'은 전라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이 급변하는 디지털 유통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판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히 올해는 라이브커머스 분야의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교육은 라이브커머스 지원을 위한 사전 실습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 시스템 구축, 네이버 등 오픈마켓 마케팅, 라이브커머스 방송 기초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교육생들은 콘텐츠 기획부터 스토리 구성, 대본 작성까지 직접 해 보며 실제 방송을 위한 경험을 쌓아 디지털 환경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나다운 기자



광주 동구의회, 개원 34주년 기념식 개최

광주 동구의회는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개원 제3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날 기념식에는 문선화 동구의장을 비롯해 전·현직 의원, 임택 동구청장을 비롯한 내·외빈과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지난 1991년 4월15일, 제1대 25명의 의원으로 출범한 동구의회는 현재 제9대에 이르기까지 34년간 구정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

지금까지 총 316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를 열어 1820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의원연구단체 운영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문선화 동구의장은 "모든 성과는 선배 의원들과 주민들께서 쌓아온 소중한 토대 위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보훈병원 이삼용 병원장, 복지부장관 표창

광주보훈병원 이삼용 병원장이 최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66차 정기총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사진)

지난 16일 광주보훈병원에 따르면 이번 표창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과 공공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됐다.

이 병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의료 환경 속에서도 병원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회복시키는 데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상은 병원장 취임 이후 추진해온 다양한 변화와 개선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 병원장은 "앞으로도 안정적인 병원 운영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노병하 기자



조선이공대, 케어웰솔루션스(주)와 협약

조선이공대학교는 지난 16일 학교 본부동 2층 회의실에서 삼성전자 협력기업인 케어웰솔루션스(주)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반도체 설비 유지보수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맞춤형 채용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 현장과 국가의 인재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청년 취업 활성화와 전문 기술인력 양성에 함께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규직 채용 연계를 위한 인재 추천 △현장실습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정 공동 개발 △현직자 멘토링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환 기자



광주 광산구-마약퇴치운동본부, 업무협약

광주 광산구는 지난 15일 2층 구청장실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와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예방 인식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마약류 오남용·중독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박병규 광산구청장, 강진승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마약류 인식 증진 및 중독예방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중독 예방 교육 협력 △이주민 대상 중독예방 특화사업 협력 △마약류 인식증진 캠페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마약류 확산을 막고 지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



광주소방, 챔스필드서 심폐소생술 홍보

광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 15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소방안전강사와 함께 프로야구 관중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는 관중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는 실습과 소방 관련 상식퀴즈로 이뤄졌으며 교육과 홍보를 통한 올바른 심폐소생술 시행법 숙지로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광주소방안전본부와 기아타이거즈구단이 협업해 실시했으며 올해도 프로야구 시즌동안 월별 1회, 총 5회 실시할 예정이다.

김영일 광주소방안전본부 화재예방과장은 "심정지 환자를 목격한다면 신속히 119에 신고하고 지체없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웃과 가족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꼭 익혀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승우 기자



광주 서구의회, 개원 34주년 기념식 개최

광주 서구의회는 지난 15일 '개원 제34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개원기념식은 국가적 재난 앞에 연대하기 위해 소규모로 개최됐으며, 절감한 행사예산과 서구의회 의원 및 직원이 모은 모금액 등 총 700여만원이 영남 산불피해 지역에 기부됐다.

전승일 서구의장은 "이번 기부가 영남지역 이웃들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원 34주년을 맞은 서구의회는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방정부로서 다양한 연대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준명 기자



공군 제1전비, '마음 전하는 군중실' 프로그램 성료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장병 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군중실에서 대신 전해드립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

이번 프로그램은 장병들이 평소 전하지 못한 고마운 마음을 사연으로 적어 군중실에 보내면, 군중실이 사연을 선정해 해당 부서에 위문 간식과 함께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주간 군중실에는 다양한 사연이 접수됐다. 동료의 묵묵한 헌신에 대한 감사나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준 전우에 대한 고마움 등 직접 말하기 어려웠던 진심 어린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군중실은 내부 심사를 통해 총 6건의

사연을 선정했으며, 이 중 '가장 특별한 사연'으로 공병대대 환경·급수반 소속 이종근 상병의 사연이 뽑혔다.

이 상병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부대 환경과 급수 점검을 묵묵히 수행하며 후임들을 살뜰히 챙겨온 선임병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상병은 "늘 미소와 따뜻한 말로 응원해준 선임 덕분에 힘든 순간도 견뎌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승원 군중실장(대위)은 "이번 행사가 그런 마음 속에 담아둔 이야기들을 나누고, 서로에 대한 감사와 격려가 오가는 건강한 병영문화의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윤준명 기자

조선대병원 신다점 교수, 췌장암 연구 논문 게재

학술지 'Cancer Letters'

조선대학교병원 간담췌외과 신다점(사진) 교수가 최근 'KRAS 변이 아형에 따른 췌장암 내 T세포의 공간적 분포 및 활성도 변화' 논문을 발표했다.

16일 조선대병원에 따르면 이번 연구 성과는 암 연구 분야의 국제 저명 학술지인 'Cancer Letters (IF: 9.1)'에 3월14일 온라인으로 게재됐으며, 정식 게재는 Volume 618 (2025년 5월28일자)에 예정돼 있다.

이번 연구는 신 교수를 비롯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정지혜 박사가 공동 제1저자, 서울아산병원 의생명연구소 전은성 교수,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최정균 교수, 서울아산병원 간담췌외과 김승철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연구진은 다중 면역조직화학염색과 전장염색시퀀싱(WES)을 기반으로 췌장암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유전자인 KRAS의 아형에 따른 종양 미



세환경 내 T세포의 분포 양상과 활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췌장암에서 면역세포들은 상대적으로 세포외기질

(ECM) 부위에 더 많이 분포하며, T세포가 많이 침윤한 그룹에서 환자의 생존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T세포의 침착 및 분포 변화는 종양세포의 유전자 변이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KRAS G12D 변이와 비교했을 때, KRAS G12V 변이를 가진 종양에서 T세포의 분포와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신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KRAS 변이의 아형에 따라 췌장암의 면역 환경이 다르게 형성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T세포의 분포와 활성도에 따라 면역치료의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정밀한 맞춤형 치료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